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4011769 김동환

오늘날,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를 지나 완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만능 기계로 자리잡은 스마트폰,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인 빅데이터, Auto-Pilot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주위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의 구현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단연 컴퓨터일 것이다. 계산기의 용도로 처음 발명된 이후, 컴퓨터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소형화 · 경량화를 거쳐왔고, 이제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일조하는 고마운 기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애플의 음성인식 시스템 ‘시리(Siri)’, 딥 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며 컴퓨터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삶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영화 「더 플랜」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하드웨어적 · 소프트웨어적으로 100% 완벽한, 결함이 없는 기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다. 날씨, 영어단어 등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부터 꺼내고,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것도 노트북으로, 시험문제의 채점도, 요즘은 시험 자체도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뇌 역할을, 주식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더 플랜」 에서와 같이 한 나라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의 개표까지도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기계의 손에 덜컥 맡겨 놓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컴퓨터를 맹신하면 생기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첫째, 컴퓨터의 부재 시 삶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컴퓨터는 무적이 아니다.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만 작동하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한다. 만약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내 모든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이나 PC를 아무런 대비 없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도 모두 먹통, 원격 통신을 하고자 해도 인공위성도 먹통, 그 파급력은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둘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서툴러질 수 있다. 요즘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도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연락은 채팅, 음성채팅, 화상채팅으로,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금융거래도 컴퓨터로, 심지어 업무의 특성상 자택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또는 사람과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인간 관계를 컴퓨터가 이어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단절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악용하는 누군가에게 자기도 모르는 새 조종당할 수 있다. 사실, 컴퓨터의 맹신이 초래하는 모든 문제점을 포괄하는 동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점은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엄청난 숫자의 인터넷 신문사, 그들이 쏟아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 우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가면서 기사를 읽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 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 번 읽고, 그대로 닫아버린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잠시 스쳐 지나간 수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지식은 남지 않고 그 기사가 주는 느낌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나중에 우리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때,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SNS의 중심에 서 있는 페이스북. 하루에도 몇 십만 몇 백만 개의 광고와 이야기들이 올라오지만 과연 그 중 진실은 몇 개고 거짓은 몇 개일까? 조회수와 좋아요를 늘리고자 연예인들의 말도 안 되는 허위 연애 사실을 퍼트리기도 하고 26일자 서울에 들렸던 공군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하는 등 허무맹랑한 글도 난무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헛소리들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영화 「더 플랜」 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투표의 결과에 상관 없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조작을 한 사람 말고는 심지어 그 감시관들조차 조작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지금까지 열거한 상황들처럼 컴퓨터라는 매체는 소수의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 특성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 주변의 정보들을 왜곡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온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컴퓨터 사용을, 위험에 노출된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당연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경계 의식 신장’ 이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현대 사회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의식이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괴리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컴퓨터 맹신으로 인한 문제들도, 어쩌면 컴퓨터 맹신 자체가 결국 우리의 의식 신장 속도가 컴퓨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일 수도 있다. 물론 컴퓨터를 아예 배제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컴퓨터 사용 빈도를 줄인다거나 또는 일상을 다시 아날로그화 한다는 건 이미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와 계속 가까워 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해결 방법은 이것을 얼마나 ‘잘’, ‘옳게’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 얼마나를 위한 노력이 우리의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말이야 거창하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컴퓨터에 보관하는 자료는 유실될 것을 대비해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온라인 속에 안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출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건전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하는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는 습관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 다시 검색을 해 보며 해당 정보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해 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도 해 보는 등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인간의 개입이다. 아직까지는 기계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더 플랜에서도 나왔었지만 단순히 기계와 사람의 검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기계를 보조적 수단에 한정시키고 결과에 도달하기 전 인간의 손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 발전의 주역인 컴퓨터, 그리고 인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완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